

2010년 겨울호

대한모발학회 뉴스레터



발행처: 대한모발학회(사무국: 02) 6671-1373)

발행인: 강진수 / 편집인: 이원수 / 간행정보이사: 권오상 / 간행정보부이사: 이상훈

위원: 강훈 김문범 최광성 민복기

인사말



대한모발학회 4대 회장 강진수

지금은 웰빙(well-being)의 시대를 넘어 웰루킹(well-looking)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물론 미적으로도 보기 좋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 중에서도 피부와 모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발은 제2의 피부로 불리면서 일반인들 역시 관련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진과 관련 산업계가 할 일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한모발학회가 출범한 지도 이제 8년, 2014년에는 세계모발연구학회를 국내에 유치할 정도로 규모가 성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술대회와 헤어포럼을 통해 모발 관련한 임상 연구와 치료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모발 분야의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모발 한 가닥 한 가닥에 숨겨진 의학적 신비를 풀면서 더욱 유효한 치료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당면 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모발학회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회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내 의료계와 산업계의 모발 관련 소식을 발 빠르고 심도 있게 전하는 한편, 세계 모발 학계의 동정도 살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뉴스레터가 모발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논의의 장(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원님들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대한모발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

강진수

1. 제6차 세계모발연구학회 KHRS Travel Grant 수여

2010년 6월 16-19일에 호주 케언스(Cairns)에서 세계모발연구학회가 열렸습니다.

● KHRS Travel grant

포스터발표자와 더불어 구연발표를 더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학회 기간 중 Korean Night 행사에서 수여하였습니다

1) 구연 발표 (100만원): 원저, 젊은 연구자 우선 지급

김범준 조교수(중앙의대): Vitamin D receptor depletion by Wnt/beta-catenin signaling caused alopecia areata in human

원종현 조교수(울산의대): The hair growth promoting effects of adiponectin in vitro

박병철 조교수(단국의대): Hair mineral analysis in the hair disorder: experience with two patients of segmented heterochromia of scalp (SHS)

2) 포스터 발표 (50만원): 전공의 및 연구원

피용천 연구원(연세원주의대): Role of ornithine decarboxylase in human hair follicle

최지웅 전공의(서울의대): Dose-response analysis of topical minoxidil in human

2. 대한모발학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2010. 10. 16)

* 상임부이사 제도 신설 및 위촉

상임이사진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신진 모발연구자 육성과 회무파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상임부이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습니다.

총무부이사 김범준교수(중앙의대), 학술부이사, 유박린교수(경희의대), 교육부이사 박병철교수(단국의대), 홍보부이사 원종현교수(울산의대), 재무부이사 조성빈교수(연세의대), 간행정보부이사 이상훈교수(순천향의대)

2010 학술대회

(1) 제7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7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Hair Research Society)

- * 일시: 2010년 6월 13일(일) 09:00~17:00
- * 장소: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 * 등록회원: 235명 (학술대회 215명, 워크숍 20명)
- * 부스 및 광고: 24 개 업체



제7차 학술대회에서는 일반자유연제로 구연 10편 포스터 17편이 발표되었고,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English-speaking session (Hair Biology)이 구성되어, Bruno Bernard (France), Abraham Zlotogorski (Israel) 두 분의 외국연자와 함께 국내연자 2명이 발표를 하였으며 향후 영어구연세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직원교육을 위하여 "모발관리 및 모낭분리교육과정"이란 주제로 satellite symposium이 있었습니다.

1) 해외 초청 연자 (5명)

① Bruno A. Bernard (France)

(Head of Hair Biology Research Group, L'Oréal Life Sciences)

"New insights into hair biology"

② Prof. Abraham Zlotogorski (Israel)

(Department of Dermatology Hadassah - Hebrew University Medical Center, Jerusalem)

"Desmosomal-Associated genotrichoses"

③ Gill Westgate (UK.)

(Westgate Consultancy Ltd, Stevington, UK and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Centre for Skin Sciences, University of Bradford, Bradford)

"Predisposition to hair loss and other hair characteristics – Nature versus Nurture?"

④ Ken Washenik (USA)

(Medical Director, Bosley Executive Vice President, Aderans Research Institute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rmatolog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merging therapies in the treatment of hair loss"

⑤ Robert Glen Calderhead (UK)

(Director, Clinical Affairs, Lutronic Corporation, Ilsan, Korea; and Japan Phototherapy

Laboratory, Tokyo, Japan)

"Role of LED therapy in hair regrowth and scalp care"

2) 런칭심포지엄

모발학회 공동연구발표: 한국인 두피 모발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의대 강 훈

3) 교육강연 (탈모증의 최신지견)

미만성탈모증

경희의대 유박린

원형탈모증

중앙의대 김범준

남성형탈모증

부산의대 김문범

4) 아모레퍼시픽 후원 교육강연

염색과 파마의 이론과 실제

아모레퍼시픽 최장원

5) 모발이식수술 라이브 워크숍(20명)

진행: 강훈(가톨릭의대), 민복기(울포스킨피부과). 시술: 강광영(모래내피부과), 박병철(단국의대)

모발이식술 전반에 관한 경북의대 모발센터 김정철교수의 강연 이후 남성형, 여성형탈모증뿐 아니라 눈썹 등 부위에 따른 시술법과 이식부위 마취법, 모발이식 후 후처치법, 부작용 예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강의와 실제수술 참관이 이루어졌습니다.

(2) 2010 Hair Forum

- * 일시: 2010. 8. 21(토)
- * 장소: 대전 유성리베라호텔
- * 등록회원: 79명



모발연구와 관련된 11개의 연제를 토론형식으로 자유롭게 발표하였으며 그 외 지난 제 6차 세계 모발연구학회 참관 관련연제 6편 등 총 17편의 연제 발표. 제 6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종합결산, 세계모발연구학회 한국 유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 세계모발연구학회 한국 유치 확정 보고



대한모발학회 총무 이원수 (유치위원장)

2010년 6월 16일~19일에 호주에서 있었던 세계모발연구학회에서, 2014년 세계모발연구학회 한국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모발학회 (이하 KHRS)는 학회 창립 이후 큰 숙원 사업을 이루게 되었고 세계 속의 대한모발학회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Hair Forum 에서 세계모발연구학회 (이하 WCHR) 유치를 발의하여 상임이사회와 전체이사회 회의 인준을 받아 유치위원회 (이원수, 권오상, 김문범, 강훈, 최광성, 이동윤, 장승호, 황성주, 민복기, 허창훈)를 구성한 것이 2008년 말이며, 조금씩 비공식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은 2009년 가을부터입니다.

WCHR 는 1995년 최초 결성되어 유럽, 미국, 일본 학회가 3년마다 순환 개최해 왔는데 호주와 한국이 나중에 참여함에 따라 3 대륙 순환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했습니다. 이미 개최 확정된 2013년 에딘버러 학회 이후 원래대로라면 2016년 미국, 2019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순서이지만 일본의 기득권으로 인해 2019년에도 한국 개최 보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초 두 달간에 걸쳐 각 학회 대표자들간에 이메일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WCHR 유치위원회는 초기에 2019년 학회 개최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학회 개최 의사를 2010년 4월 초 한국이 가장 먼저 표명하였으며 일본도 곧이어 2016년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유는 2016년 학회 유치를 신청하여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2019년도 유치 명분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달간 5개 학회 대표자간에 이메일을 통해 정말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결과 원래대로라면 2016년은 미국 순서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대결구도가 생기면서 미국의 양보와 유럽의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얻어냈습니다. 당시 호주는 일본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13일 KHRS 학술대회에 참석한 미국과 유럽 대표들과 서울에서 담판을 지은 결

과 2015년 일본, 2017년 한국 2019년 미국 이라는 합의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2016년보다 더 좋은 안이고 KHRs의 입장에서도 2019년에 배수진을 치고 2017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시 2019년 확보면 100%, 2017년 확보면 120% 목적 달성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2016년 개최를 두고 투표에 들어가서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주가 일본을 지원해도 우리가 3대 2로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호주 현지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에서 두 번 연속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외로 일본도 이해 할 수 없는 반응으로 위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본학회 총무가 제게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3가지 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곧바로 한국, 미국, 유럽 세 학회 대표 모임을 재차 요청해서 한 시간 반 동안의 긴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최종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WCHR 은 이미 개최 확정된 2013년 에딘버러 학회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개최한다.

둘째, 새로운 매년 개최 시스템에서 첫 번째 개최지는 한국이다. 그 후는 대륙 별 안배차원에서 미국이 개최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이 개최한다.

셋째, 그 이후는 그 전까지의 운영상황을 보고 추후 재평가하기로 한다.

학회 마지막 날인 6월 19일 오전 7시 30분에 상그릴라 호텔에서, 이미 예정되었던 공식적인 5개 학회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학회에서 두 명씩 참석하도록 인원 수가 확정됨에 따라 허창훈 재무이사를 대동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최종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한국: 이원수, 허창훈
- * 미국: Ken Washenik, George Cotsarelis
- * 유럽: Gill Westgate, Abraham Zlotogorski
- * 호주: Rod Sinclair, Philip Hynd
- * 일본: Kensei Katsuoka, Royiji Tsuboi

사전 조율한 안이 확고했으므로 회의는 이를 추진하는 요식 절차인 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 유럽 대표자 간에 합의한 안에 따라 분위기를 주도하여 어려움 없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서도 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2/3 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 한국이 당당히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세계모발연구학회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 동안은 유럽, 미국, 일본 세 학회만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더욱이 대표자 회의에서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에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럴 경우 일본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우려가 있었고 따라서 사전에 조율된 안을 만들어 간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WCHR 유치에 성공하게 되어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동안 KHRS 를 훌륭하게 키워 주신 전임 노병인, 박장규, 임철완 회장님과 심우영, 김도원 총무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KHRS 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국제학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점, 외국의 중요한 opinion leader 들을 초청하여 KHRS의 발전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느끼게 해 준 점 등이 합쳐져서 외국 대표들과 협상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14년 WCHR 유치에 성공하고 보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까운 장래의 일이 되었습니다. 4년이란 기간은 세계학회를 준비하는데 결코 긴 기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역대 최고의 전무후무한 성공적인 학회를 개최할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2014 WCHR 한국 유치는 대한모발학회와 그 회원 나아가 피부과학회 회원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유치위원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회 참관기

1. 제6차 세계모발연구학회

(6th World Congress for Hair Research)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전공의 최 지 응

세계모발연구학회는 모발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는 국제적 학술대회로, 학술, 모발연구 분야의 최고, 최대규모이며 매 3년마다 열리는 국제학회입니다. 이번으로 6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세계모발연구학회는 호주 북동부의 열대 휴양도시인 케언스에서 2010년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학회가 열린 케언스 컨벤션센터는, 제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학회장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조용하고 평온한 주변 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열리는 큰 규모의 학회에서는 많은 세션이 동시에 열려서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도 있지만, 반면 강의가 겹쳐서 원하는 것을 듣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번 세계모발연구학회에서는 다행히 강의를 서로 겹치지 않아서 듣고 싶은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회 시작 날인 16일에 처음 들었던 세션은 Clinical Symposium으로, 이번 세계모발연구학회의 조직위원장이시고 널리 알려진 Sinclair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연제 중에서, 흑인여성에서 나타나는 탈모에 대한 10년간의 임상연구발표는 그 중에 재미있게 들었던 강의였고, 그 외에 체디악-히가시 증후군에서 보일 수 있는 모발의 이상에 대해 발표한 케이스도 인상적이었으며, 첫 세션 다음으로 진행된 CARF(Cicatricial Alopecia Research Foundation) Symposium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반흔성 탈모(cicatricial alopecia)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관한 최신지견을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같이 동행한 후

배 전공의와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며 전반적인 학회 분위기 및 강의 내용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고 식사 후에는 부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스가 설치된 공간에 인터넷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하였고, 부스공간에 학회 포스터를 함께 전시하여 차분한 학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sponsored lecture로 주로 구성되었고, 탈모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주로 기초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탈모의 치료를 위해 모발재생과 관련한 모낭줄기세포의 역할 및 중요성을 언급한 Cotsarelis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북미모발연구학회의 수준을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고 모발연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세션은 모발의 구조와 색깔, 그리고 광택과 꼬임 정도 등을 유전자 분석과 단백질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날 저녁, 케언스의 한 중국 식당에서 열린 코리안 나이트는 제6차 세계모발연구학회를 참석한 한국인 모두가, 학회에서 잠시 벗어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저로서는 대한모발학회에서 주신 Travel Grant를 받게 된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줄기세포와 반흔성 탈모에 대한 연제로 시작하였고, 모낭에 위치한 세포 중 특히 dermal papilla cell이 가지는 다능성(pluripotent) 특징에 대한 강의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후의 세션은 많은 연제가 pattern hair loss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었고 이 중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및 안지오텐신 수용체가 모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발의 성장 주기와 관련하여 발표한 부분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흥미 있는 강의와 발표가 있었지만 전공의이다 보니 기초연구보다는 아무래도 임상 쪽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 쉽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PPAR-gamma도포제를 치료가 쉽지 않은 반흔성 탈모에 이용한 것은 탈모의 병인에 따라 targeted therapy로 적절한 치료한 예이며,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Congress dinner가 있었던 셋째 날 저녁은, 학회가 끝난 후 학회참석자 모두가 버스를 타고 Rainforestation Nature Park로 이동하여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인 캥거루와 코알라를 구경하였고, 이후 디너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원형탈모와 면역학에 대한 내용으로 첫 세션이 시작되었고, 이후 대한모발연구학회에서 주관하는 lecture로, TGF-beta Signaling Pathways; Biology and Hair Follic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김성진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세계모발학회 발표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들은 것이 TGF-beta와 모발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본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비롯하여 많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발에 대한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국제학회로서, 워낙 다양한 주제가 동시에 다루어져 분야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강의 및 발표가 끝난 후 열린 분위기 속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괜한 기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발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문과 호기심을 풀어가는 자리이며, 각자의 연구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 및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력을 확인하고 격려해 주는 자리가 세계모발연구학회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회를 통해 자신들의 지식과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세계 각국 연자분들의 모습을 보며, 아직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은 전공의로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희망찬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4년 후인 2014년에는 세계모발연구학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모발관계자들이 모이는 큰 규모의 국제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피부과 전공의 중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오며, 2014년 세계모발연구학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함께 대한모발학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계모발연구학회를 참석 위해 Travel Grant를 수여해 주신 대한모발학회 회장님 이하 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1st International Congress of Trichology **참관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강 훈

저는 올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인도 첸나이(Chennai)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 세계 모발학 학회(1st International Congress of Trichology)에 다녀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 학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인도 모발학회의 중요 인물인 Dr. Sundarm Murugusundram으로부터 연자로 초청 받은 연세대 원주의대 이원수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원수 교수님, 분당서울대병원의 허창훈 교수가 함께 참가하여 연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학회 참석을 위해 출발하는 날 내심 인도라는 국가와 첸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어 근심 반 기대 반인 심정이었습니다. 첸나이 공항에 내려서부터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공항부터 학회장까지 이동하는 약 1시간 30분 동안 한시도 쉴 틈 없이 경적을 울려대는 승용차들과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아무 때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마치 우리의 70년대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학회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 역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평소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풍습에 견주어 주최 측의 처우가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제학회 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인 참석자는 우리들을 포함하여 10명 남짓이었고 전체적인 학회 진행을 Dr. Sundarm Murugusundram과 몇몇 관계자만이 관여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느낌마저 마저 들었습니다. 즉 여러 나라의 공조가 아닌 전적으로 인도 모발학회 주도하에 만들어진 학회라는 사실을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회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보이진 않던 인도 모발학회의 저력과 열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인도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700여명이라는 경이로운 등록인원과 모발에 관한 인도 의사들의 학구열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참여한 모든 의사들이 preconference workshop을 포함한 4일 동안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토론하는 모습이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발음에 겨우 귀가 쫓아갈까 말까 하는 저에게 있어 유창한(?) 인도식 영어는 눈과 귀에 관여하는 모든 근육을 최고 조로 긴장시켜야 그나마 무슨 상황인지 이해된다는 게 슬플 따름이었습니다.

학회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모발의 구조, 유전질환, 진단, 정신과적 문제, 사진 촬영 방법, 신경 연관 관계, 남성형탈모, 여성형탈모, 반흔성탈모, 진균학, 병리학, 면역학, 미용학, 소아모발질환, 모발관련 수술, 약물학, 노화, 색소질환, 다모증, 영양 등 의학적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주제와 모발과 관련한 신화, 탈모예찬 등 다소 우리에게 생소한 분야까지 총 망라하는 프로그램 구성이었습니다. 이원수 교수님이 참여하신 MPHIL와 hair aging session은 모두 panel discussion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인도의사들의 열띤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Panel discussion 방식도 매우 스피디하고 단시간 안에 다방면의 주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향후 우리나라 학회에서도 이런 포맷을 참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학회 전날에 열린 workshop에선 주로 전공의나 모발진료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를 대상으로 국소 면역치료, 두피생검, phototrichogram, 모간이상질환, 모발화장품 등을 잘 정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장 안에서 수시로 들리는 큰 목소리 휴대전화 통화, 발표자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의 잡담소리 및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학술 프로그램 내용은 실망 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학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열정과 담대함, 모발에 관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인도 모발학회 저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2010년 제 4기 대한모발학회 임원진 구성(2010.6~2012.5)

고문	노병인	관동의대 명지병원 피부과
고문	박장규	대전 웰피부과
고문	임철완	전북의대 피부과
회장	강진수	아름다운오늘 강한피부과
부회장	김도원	경북의대 피부과
총무이사	이원수	연세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피부과
학술이사	강훈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육이사	김문범	부산의대 피부과
재무이사	최광성	인하의대 피부과
홍보이사	민복기	울포스킨피부과
간행정보이사	권오상	서울의대 피부과
감사	심우영	경희의대 동서신의학병원 피부과
감사	김정철	경북의대 면역학교실
총무부이사	김범준	중앙의대 피부과
학술부이사	유박린	경희의대 동서신의학병원 피부과
교육부이사	박병철	단국의대 피부과
재무부이사	조성빈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
홍보부이사	원종현	울산의대 피부과
간행정보부이사	이상훈	순천향의대 피부과

2011년 모발관련 학회 일정

국내학회

2011년 8월20일(토)	
2011 Hair Forum, 장소: 대전 (http://www.khrs.or.kr)	 The Korean Hair Research Society

2011년 9월 18일(일)	
제8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장소: 서울 (http://www.khrs.or.kr)	 The Korean Hair Research Society

해외학회

February 4-8, 2011	
 NAHRS Meeting at AAD 69th Annual Meeting Scientific Session & Luncheon Friday, February 4, 2011 • 12:00 p.m. - 2:00 p.m. New Orleans, LA, USA http://www.aad.org/meetings/annual/	

July 6-9, 2011	
15th Annual Meeting of European Hair Research Society (EHRS) July 6-9, 2011 Jerusalem, Israel http://www.ehrs.org	

September 14-18, 2011

**19th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Society of Hair
Restoration Surgery (ISHRS)**

September 14-18, 2011

Anchorage, Alaska, USA

<http://www.ishrs.org/AnnualMeeting.html>



October 27-28, 2011

Cicatricial Alopecia Research Symposium 2011

October 27-28, 2011

Bethesda Marriott; Bethesda, MD, USA

http://www.carfintl.org/2011_symposium.html

